



광주·전남·전북 '메가시티 경제동맹' 첫발... '행정통합' 꿈틀

제12회 호남권정책협의회
7년만에 전북 정읍서 개최

광역 SOC·에너지·바이오 등 산업분야 상호 협력 약속
메가시티 고속도로·호남 관광문화 주간 등 추가 합의

강기정 시장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 성공모델 만들것"
김영록 지사 "중장기적으로 행정적 통합까지 나아가야"

최우선 과제로 고흥-광주-전주-세종을 거치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추진 ▲호남 RE100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동 생산·활용, 분산 에너지 확산, 공동연구,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등 협력 ▲호남의 풍부한 관광·문화·역사·예술 자원·역량 바탕으로 2025년부터 '호남 관광문화 주간' 공동 개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 실현을 위해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다.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 4월 오전 전북 정읍시 JB금융그룹 아우름컴퍼스에서 열린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문에 서명 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경제동맹'으로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전북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컴퍼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관련기사 3면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민선 6기 때인 2017년 나주에서 열린 것을 마지막으로 7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기존의 전 분야 협력 과제를 발굴·보고하는 방식이 아닌 경제·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상호 협력 관계를 다짐하고자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3개 시·도지사는 전국적인 초광역 메가시티 공론화 흐름 속에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결성하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 목표를 향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선언문은 ▲3개 시·도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광역 교통망

확충 ▲재생에너지·이차전지·바이오·모빌리티 등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협력 ▲지방소멸 및 지방재정 위기 극복 ▲동학농민혁명 선양 및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호남권 정체성 확립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위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 제·개정 등 입법 및 국가예산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호남고속도로의 중복 구간, 지·정체 구간 해소 등을 위해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고흥-광주, 담양-화순, 담양-순천 고속도로 신설·노선 조정 등 호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6월 3개 시·도는 각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책협의회의 기존 협력 과제 추진 상황

점검과 새로운 공동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앞으로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각 지역 테크노파크(TP),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광역 SOC, 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등을 도출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호남권 시·도간

인사 교류, 해외 호남향우들과 소통 강화,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시·도 공연 예술단 교류 등 기존 협력 과제들도 지속 추진하면서 호남권 연대 협력 사업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현을 위한 우선 추진 사업을 추가로 합의했다. 추가 합의 사업은 ▲초광역 교통망의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초광역자치단체간 연합이 필요하다"며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해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은 발전 전략을 넘어 생존전략으로 수도권 1극체제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수도권과 경쟁·발전할 수 있는 단일 경제생활권을 만들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전남·전북이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성공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30년이 돼가지만 지방은 여전히 충분한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해 철제철명의 지방소멸 위기에 있다"며 "3개 시·도의 경제동맹 결속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행정적 통합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전남특별자치도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박성강기자

"2030년대 이후 한반도 폭염 일상화한다"

GIST 윤진호 교수팀 연구 결과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상 기온에 따른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는 '뉴 노멀(New Normal)'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따르면 윤진호 지구-환경공학부 교수가 주

도한 국제공동연구팀이 '제6차 기후 모델 미래 전망 데이터(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6 CMI P6)'를 분석한 결과, 2030년대 이후 한반도 여름철 평균 온도 추세가 자연 기후 변동성을 넘어 매년 평년보다 더운, 폭염이 일상화된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여름철 기온이 항상 지금까지의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온이 새로운 일상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이 지난 5월 발표한 올여름철 기온에 대한 장기 전망에도 7·8월의 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각각 40%와 60%로 전망됐다. 반면,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20%로 예측했다. /김다기 기자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통과

오늘 국회 개원식 무산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왜곡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 관련기사 4면
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0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채상병특검법이 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5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국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개원식도 무산됐다. /김진수 기자

Today

민선8기 '김영록' 성과비전 10·11면
동인 선상역경강화-육십사과 15면
양현종, 500경기 출장 '대기록' 16면

제11회 무등산 문학백일장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문인협회는 호남 향토문학 정진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학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1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문학백일장은 무등산과 호남 등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 주제와 가사문학을 통해 향토문학을 발전시키고 예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더욱 더 승화시키기 위한 일환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문인의 등용문이자,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일반부 / 청소년(중·고생)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이내)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4년 6월 10일 ~ 8월 31일
- 입상자 발표 : 2024년 9월 18일(수)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상단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학년) 기재할 것.
- 등단 작가는 본 공모에 접수할 수 없음
-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문인협회**